

2013년 2월 (제 5호)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개펄 교향곡

김귀녀

세월의 골이 깊게 패인 할머니
허리에 묶어 끌고 가는
고무다라이 속 한숨소리
해풍이 몰고 간다

꼬막 줍는 거친 손
검은 건반 주무르면
파도가 노래하고
햇빛 조명 받은 갈매기 춤을 춘다

생존의 바다를 기는
작은 계들의 신음소리
산란기 조개 입덧에 묻혀
펄 속에 스며들고

갯바닥 인생
허리 굽혀 부르는
고단한 삶의 노래
먼 바다로 흘러가는 개펄 교향곡

삶(임창인)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C O N T E N T S

PART 01	열린마당 국립해양박물관, 만형이 되어야 한다.	03
PART 02	박물관 둘러보기 바다로 가는 길잡이	05
PART 03	공모전 부산항의 관문 오륙도를 만난다. “오륙도 사진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해양디자인을 만나다.	07
PART 04	소장품 이야기 조 새	09
PART 05	박물관 사람들	11
PART 06	박물관 교육행사	12
PART 07	박물관 소식	13
PART 08	강연후기	14



열린마당

국립해양박물관, 만형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급변하는 해양질서에서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부활이다. 이는 해양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을 중요시하겠다는 것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립해양박물관의 입지도 강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이하 박물관)은 2011년도 말로 1,000관을 넘어섰다. 마침내 OECD 평균(인구 5만 명당 1개관) 수준을 맞추게 되었으며, 1990년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 표방하며 박물관 1,000관 건립을 제시했던 문화부의 외형적 목표가 달성된 셈이다.

이 정도의 박물관 수라면 박물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질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박물관평가 인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관은 평가인증을 하고 지원을 확대하되, 그렇지 못한 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뮤지엄 평가 프로그램(MAP)' 과 영국의 '박물관 인증 기준제' 를 연상케 하나 박물관에 대한 가치관과 공공적 인식의 깊이가 다른 우리의 입장에서 그 정착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역할과 함께, 박물관 스스로의 자구적 발전방안 마련과 실천은 우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에서 해양과 직접 연관된 박물관은 30여 기관 정도이다. 생활사·민속·어촌·자연사·등대·수리 등의 명칭을 달고 있는 박물관은 보다 직접적이며, 역사·고고학 박물관도 간접적으로 해양과 관련된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이러한 박물관을 대상으로 만형 역할을 해야 한다. 이들과 연계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우선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보다 기본적인 분야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양과 관련된 유물에 대한 보존과 관리, 조사·연구에 있어 국립박물관이 보유한 기술을 공유하고 전수해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등 고고학적 박물관과 겹치지 않는 해양자연사 자료부터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주도해 나아가되, 유서깊은 작은 박물관의 배울 점은 과감하게 수용하는 상호 교류가 요구된다. 이는 자연사를 비롯한 생태박물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보존·관리 실태와 아카이브 기능이 현재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계를 넘어 국립해양박물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명분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규모 박물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장품 정리, 전시지원, 교육프로그램 교류 등 협력망 사업은 하나의 참고가 될 것이다. 국립박물관이라는 권위에 앞서기보다 박물관 내부로부터 존중받는 역할을 고민할 때이다.

윤태석(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문화학 박사)





둘러보기 바다로 가는 길잡이

국립해양박물관의 상설전시는 크게 1영역, 2영역, 체험전시로 나누어진다. 박물관 3층에 위치한 상설전시 1영역은 '나의 바다'라는 전시콘셉트로 역사 속의 우리 해양력을 보여주려 하였다. 그곳은 항해선박관, 해양역사·인물관, 해양문화관을 배치하였다. 이 배치는 바다와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인 '배', '배'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탁월한 해양활동을 하였던 해양인물,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갔던 우리 민족의 모습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위함이다.

상설전시 2영역은 '우리의 미래'라는 전시콘셉트로 해양의 가치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해양산업관, 해양과학관, 해양영토관을 배치하여 바다가 주는 경제력과 생산력,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등을 관람객에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박물관 전시의 시작점에는 '바다로 가는 길잡이'가 배치되어 있다. 나침반 조형물과 함께 바다를 항해할 때 필수적인 도구를 배치하여 박물관이라고 하는 '바다'를 탐험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세계최초의 해도첩 「바다의 비밀」 초판본과 항해용 지구의와 천구의 세트가 전시되어 있다. 해도는 바다를 항해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며 지구의·천구의 세트 역시 항해할 때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점에서 바다를 항해한다는 의미부여에 적합한 유물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항해는 배를 이용하여 바다 위를 옮겨 다니면서 사람이나 재화 등을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바다를 이용한 항해를 통해 문화가 전달되고 수용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문명은 발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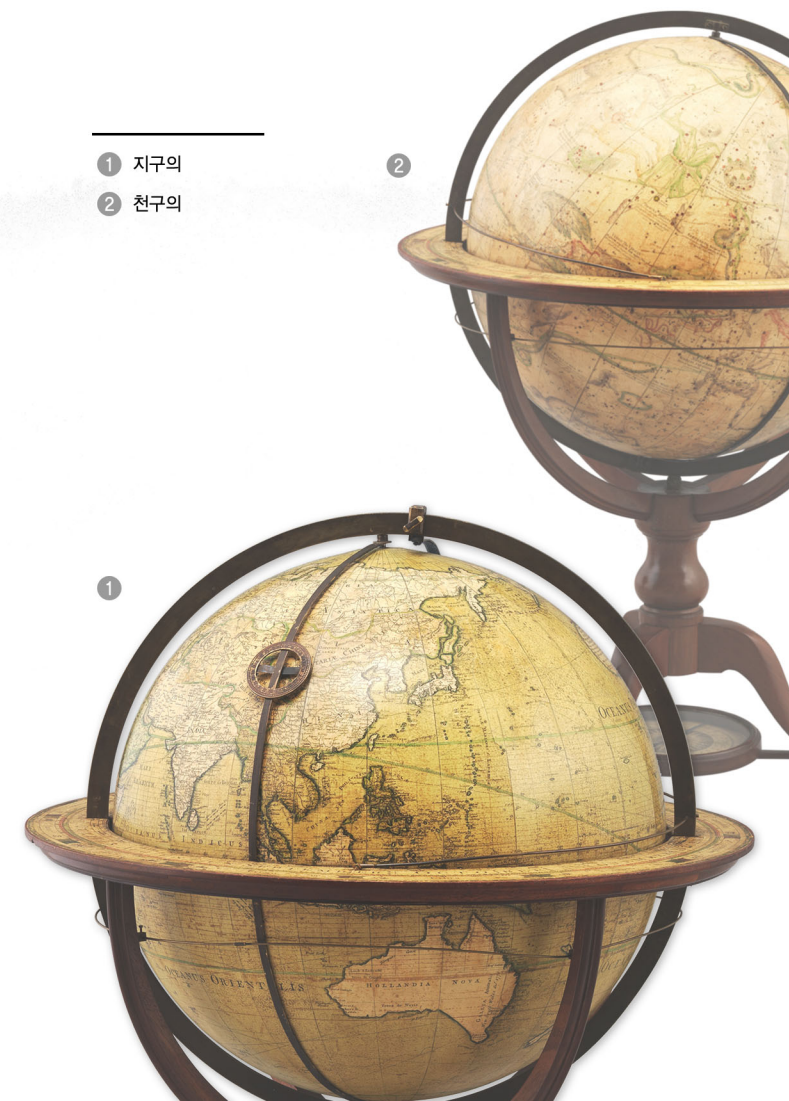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미지의 세계였던 바다를 탐험하였다. 바다는 인간에게 식량을 제공해주었으며, 외부와의 교통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바다는 중요한 탐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바다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다. 배를 이용하여 바다로 나가는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인간이 항해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육안을 통해 지형적 특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하는 지문항해 地文航海, geonavigation 를 하였으며 점차 태양, 달, 행성 등의 위치와 고도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측정하는 천문항해 天文航海, celestial navigation 로 발전하였다. 천문항해를 하게 되면서는 지문항해시기보다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었지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역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의 바다에 대한 탐험의지를 방해하지는 못하였다.

생존과 무역을 위한 활동은 15세기 포르투갈 엔리케 Henrique O Navegador, 1394~1460 왕자가 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하면서 시작된 '대항해시대 大航海時代'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각 대륙을 가르는 장벽이었던 바다가 문명권들이 서로 만나는 소통로가 되었으며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에는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범선들이 만들어졌고, 중국에서 넘어온 나침반이 항해에 이용될 수 있을 만큼 개발되었다. 나침반과 더불어 별의 위치를 이용하여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장비들이 함께 만들어진 것도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지구가 둥글다는 과학적 발견과 르네상스 시대 지리학의 발전도 먼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았다.

대항해시대의 바다 탐험을 통해 더욱 정밀한 해도와 지구의·천구의가 만들어졌고 이들은 바다를 항해할 때 선박의 위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길잡이로 사용되었다. 해도와 지구의·천구의는 사람들을 더욱 먼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고, 바다는 인간의 삶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유물들을 국립해양박물관 전시의 시작점에 전시한 것은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하는 거창한 구호로서가 아닌, 우리와 늘 함께 있는 바다를 좀 더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이형기(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 1 지구의
- 2 천구의

공모전

부산항의 관문 오륙도를 만나다. 「오륙도 사진전」

전시명

오륙도 사진전

전시기간

2013년 1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시장소

박물관 1층 해양도서관

부산항의 관문이자 부산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정겨운 섬으로 알려진 오륙도 사진전이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최중입니다. 오륙도는 기암괴석, 300여 종의 동, 식물이 서식하는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아직은 생소하지만 오륙도 및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가 우수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이 높아 2003년 12월부터 해양보호구역 MPA, Marine Protected Area 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1회 오륙도 사진전 공모전 수상작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륙도 사진전은 해양문화와 친해양 의식을 제고하고 오륙도 및 주변해역의 보호구역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입니다. 이는 사진을 통하여 부산의 오륙도를 비롯한 바다의 생태환경을 재인식하고, 이에 관한 해양환경을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94점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작품 중에서 오륙도의 주변해역과 해양환경, 특히 해양관광에 관련된 작품에 초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이향숙의 “오륙도 유람선”은 오륙도와 주변환경의 발전된 모습이 잘 부합된 작품이고, 최우수상인 한채영의 “오륙도의 겨울 1” 역시 오륙도 중심으로 주변에 역세를 부각시킨 계절적 분위기를 잘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오륙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상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 1층 해양도서관에서 진행되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오륙도 사진을 감상하시면서 유리창 넘어 바라보이는 오륙도를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감동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해양디자인을 만나다. 「해양디자인 공모전」

전시명

제3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전시기간

2013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전시장소

박물관 1층 다목적홀

1월 15일(화)부터 2월 3일(일)까지 박물관 1층 다목적홀에서는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의 제3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됩니다.

제3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은 (재)부산디자인센터, (재)중소조선연구원, (사)한국해양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하여 해양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해양산업 및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 8월~11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전국에서 출품된 200여점 중 8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자인 김형진·김소영씨의 ‘RIVAL’ 과 부산광역시시장상인 권지훈·한제원씨의 ‘Mirage Lighthouse in culture’ 을 비롯하여, 해양레저분야 ‘Mud Hob(남현태·길범주)’, 해양산업장비 ‘Rescue Board’ (정태훈·이혜미), 해양공간분야 ‘Coral Reef’ (이수진·이솔지), 해양서비스분야 ‘LIGHT CLIP’ (한규만·설한별), 특별주제 ‘I’m p.f.’ (구자림) 등의 수상작들이 전시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해양레저장비 등 부문별 수상작을 통해 미래의 해양산업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양디자인공모전 수상작 전시를 통하여 관람객들은 해양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해양강국으로의 비전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소장품 이야기

조새

들어서기만 해도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은 온통 진흙 빛이어서 언뜻 보면 아무것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뚝뚝 뚫린 숨구멍만큼 많은 생물이 살고 있다. 짱뚱어, 꼬막, 맛조개, 바지락, 낙지 등 갯벌에서 나는 것 중에 별미가 아닌 게 없지만 오랜 세월 동안 굴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식품이 있을까 싶다.

굴에는 비타민 A와 D를 비롯하여 보통 음식에는 적게 들어있는 셀레늄, 철분, 칼슘 등의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서양에서는 남성호르몬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 즐겨 먹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빈혈이나 간장병 후에 체력을 회복할 때 먹어왔다.

굴은 본래 바위에 붙어서 자라지만 높은 인기만큼 많은 생산량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양식한다. 갯벌에 돌을 집어넣어 이 돌에 붙어서 자라는 굴을 얻는 투석식과 소나무나 참나무 잔가지를 갯벌에 꽂아서 굴을 얻는 송하식, 말목을 박아 줄을 늘어뜨리고 조개껍데기에 포자를 붙여서 양식하는 지주식



굴기는날(곽문구)

- ① 굴함지와 조새
- ② 조새



꽃아서 굴을 얻는 송하식, 말목을 박아 줄을 늘어뜨리고 조개껍데기에 포자를 붙여서 양식하는 지주식 굴 양식 등이 있다. 이렇게 굴은 어딘가에 붙어서 자라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캐내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번 호에서 소개할 소장품 “조새”이다.

조새를 부르는 이름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크게 경남지역과 여수, 순천, 고흥의 갯마을 어민들은 ‘쫄시게(개)’ 나 ‘조시게(개)’ 라고 부르며, 장흥, 완두, 무안, 함평, 신안, 영광,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조새’, 인천에서는 ‘죄’ 라고 부른다.

그 생김새를 보자면 조새는 곡괭이 모양을 한 방아쇠와 손잡이 역할을 하는 몽둥이, 굴의 알맹이를 따내는 갈고리로 이루어져 있다. 갯벌 환경에 따라 방아쇠의 날이 두 개인 것과 하나인 것이 있으며 몽둥이를 원통형으로 깎은 것과 독특한 모양으로 깎은 것도 있다. 갈고리도 길게 빼서 끝만 살짝 꺾은 것과 그 길이가 짧은 것 등 그 생김새가 다양하다. 몽둥이 부분을 손으로 짊 쥐고 방아쇠로 굴의 두 껍데기가 맞닿아 있는 인대 부분을 친 다음 위쪽 껍데기를 들어낸다. 그리고 갈고리로 안의 뽀얀 살을 쿡 찍어 바구니에 담는다.

호미를 가지고도 굴을 캘 수 있지만 그러면 껍질째로 굴을 캐낸 다음 다시 껍질을 벌리고 안에 있는 살을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호미 날의 크기도 굴 캐는 작업에 적당하지 않다. 하지만 조새를 이용하면 안에 있는 살만 발라낼 수 있기 때문에 생김새는 단순해도 조새만큼 굴 따는 데 최적화된 도구는 없다.

현재 국립해양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는 굴함지와 조새를 전시하고 있다. 함지는 통나무 속을 파내서 음식을 담거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용기인데 이 유물은 특별히 굴을 채취할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테두리도 넓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굴껍질을 까는 작업대 역할을 했고, 속을 깊게 파서 껍질에서 캐낸 굴알을 담을 수 있게 했다. 조새는 몽둥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독특하게 조각하였다.

● 참고문헌 김준, 『김준의 갯벌이야기』, 도서출판 이후, 2009년 /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어구도감』, 2002년

박물관 사람들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하고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호기심과 기대감에 들뜬 많은 분들이 성큼성큼 박물관으로 무리를 지어 들어오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전시물 고정이 충분한가, 보행에 지장물은 없나, 안내사인물은 적절한가, 운영요원이 관람객들에게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가슴 졸이며 준비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2012년 12월 30일, 박물관 관람객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7~8년간의 긴 검토와 공사, 준비기간을 거쳐 개관한 국립해양박물관이 한국해양의 역사와 미래, 그 접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민하고 땀 흘렸던 국토해양부 직원들과 동료들, 협력사 직원들 모두가 잠시나마 보람과 성취감도 한껏 가졌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은 민간BTL Build Transfer Lease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어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와 민간 시행사인 해양문화 주식회사가 각자 업무범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던 많은 분들은 정무기관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투명성이 민간기업의 강점인 창의적이고 유연한 업무추진방식과 결합하여 좋은 시너지효과로 이어지길 기대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역할과 목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와 방식의 차이가 있었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문화도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물관 운영의 전통적인 규정과 원칙을 존중하는 성향과 서비스 만족도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의 크고 작은 의견충돌이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상호간의 목표의식 공유와 업무의 이해를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기도 합니다만, 준공과 개관준비로 이어지는 바쁜 일정 속에서 화합의 모임과 이벤트를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 8월, 엄청난 수의 관람객들이 차도와 도보를 점령하며 박물관으로 물밀듯이 들어오셔서 많은 이들을 긴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상외의 관람객 규모에 내심 운영활성화를 염려했던 많은 분들은 반색을 하셨지만 당장의 운영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교통정체, 안내정보 부족, 관람정체, 서비스이용 신청의 급등, 소모품의 공급 부족 등 거의 모든 것이 한계치로 치달고 있었고 이와 비례하여 임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도 급증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임직원들 상호간의 업무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활발해졌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시급성에 따라 신속한 현장대응조치가 실시되고 비상소회의가 소집되어 관련 부서 간 검토와 대책수립이 일사분란하게 진행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이해와 처리절차 등에 대해 평소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효과도 보았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처리해야하는 업무긴박감도 한몫을 했겠지만 국립해양 박물관을 찾아주시는 많은 국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구성원들 각자의 사명 의식이 발현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5천년 역사 속에 언제나 해양강국의 위상을 드높였던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립해양박물관, 수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해양 역사의 새로운 문을 연지 채 일 년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익성과 운영효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최초로 공동운영하는 박물관이란 점 때문에 여러모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우리 구성원들은 소속과 역할은 달라도 각각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 이상의 이러한 사회적 사명도 함께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한차례의 폭풍이 지나가듯 2012년 하반기가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다가오는 2013년에는 이보다 더 한 폭풍이 닥쳐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안도감을 가져 봅니다. 궁극적으로 국립해양박물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염원하는 박물관 가족들 한분 한분의 진심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동훈(국립해양박물관 운영실장)



박물관 교육행사

Happy Weekend 충무공 전술비연의 암호를 풀어라!

매주 토요일 | 14:00~15:30 |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 4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무료(재료비별도)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말프로그램으로 우리 민족의 슬기와 과학적 지혜가 담겨 있는 전술비연에 대한 학습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가족 간의 놀이로 유익한 체험프로그램

우리바다를 지켜요

매주 수~금 | 11:20~11:40 | 유아 | 30명 | 어린이박물관 | 무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구연동화를 통해 이해시키고 율동과 함께 동요를 불러보면서 생활 속에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유아교육프로그램



갤러리토크

2월 27일 수요일 | 11:00~11:40 | 전체 | 20명 전시실 | 무료

'조선통신사선'에 대한 세부적인 지식을 학예연구사의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면서, 현재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과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일자	주제	담당자
2월 27일(수)	조선통신사선	김윤아(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3월 27일(수)	제주와 해녀이야기	이형기(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4월 24일(수)	물고기, 내 이름은 왜?	윤종균(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관)
5월 29일(수)	유물의 복제에서 전시까지	차인철(국립해양박물관 전문관)
6월 26일(수)	우리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이형기(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박물관 소식



100만 관람객 돌파 감사이벤트 2013.1.1

2012년 12월 30일, 국립해양박물관의 관람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만 돌파 감사 이벤트'로 새해 첫날 첫 입장 관람객에게 박물관 평생무료관람권(4D영상관, 특별전, 주차장 무료이용)과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였습니다.



오륙도 사진전 2013.1.8~2.17

부산항의 관문이자 부산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정겨운 섬으로 알려진 오륙도 사진전이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제1회 오륙도 사진전 공모전 수상작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를 통해 오륙도의 아름다움과 바다의 생태환경을 재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전시 2013.1.15~2.3

제3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는 '해양디자인전'이 1층 다목적홀에서 선보입니다. 해양산업과 산업디자인이 융합된 87점의 작품을 통해 해양 미래산업의 발전방향을 가능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일보

2013.1.7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부산 최고 명물 만들겠다"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도록 올해엔 한층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자리한 국립해양박물관 박상범(56) 관장은 개관 175일 만인 지난달 말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개관 반년 만에 관람객 100만 명 교통편 확충·이동 박물관 운영 외국인 방문객 유치 큰 자신감

박 관장은 "지난해 7월 개관할 당시만 하더라도 올해 6월 말까지 75만 명규모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예상치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관람객들이 찾아온 것은 국내 유일의 종합해양박물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물관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영도 바닷가에 위치한데다 주변에 태종대라는 걸출한 관광지가 있다는 점도 관람객 유입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박 관장은 관람객 확대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박물관으로 오는 교통편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협의해 현재 한 개뿐인 시내버스 노선을 증편하는 것은 물론 박물관 옆 바닷가에 유람선 접안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

박 관장은 "상반기 중으로 버스 두 대를 구입, 한 대는 서부 버스로 투입하고 다른 한 대는 시민들을 찾아가는 '이동 박물관'으로 만들 것"이라며 "교통편이 더 나아지면 올해 말까지 150만 명 이상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박물관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연구·조사를 전담할 수 있는 학예사 인력 보강과 시민 유물 기증 운동의 확산 등을 꼽았다.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의 학예사는 13명. 1만 3천400여 점에 달하는 유물 보관과 전시, 교육에 매달리기에 부족한 인원이라는 게 박 관장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등이 전문 연구 인력을 수백 명을 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연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토해양부가 박물관의 특수법인화를 추진 중인데 올해 안으로 이 작업이 완료되면 연구 인력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관장은 이어 "박물관은 국립이지만 사실상 부산시민들의 것인 만큼 시민들이 유물 기증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준다면 전시 유물의 스토리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밖에 그는 올해부터 박물관의 야외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행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대학, 다양한 공연 유치, 해양 예술 문화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 관장은 '박물관 인근 크루즈터미널 입항 선박과 KTX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홍보작업을 추진한 만큼 올해부터는 외국인 관람객들도 대거 몰려들 것'이라며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은 해양문화의 거점, 부산의 최대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출생인 박 관장은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교통부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5개 박물관 건립을 전담하는 도시건설국장 등을 역임한 뒤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장 공모에 선발돼 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천영철 기자 cyo@busan.com

관람후기

다시 찾고 싶은 영도, 또 만나고 싶은 국립해양박물관!!

2012년 7월에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한다는 반가운 소식에 한껏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관하자마자, 큰아이가 창원대학교 과학진흥센터 주관 행사로 다녀와서는 자랑을 한보따리 늘어놓았습니다. 꼬~옥 다시 가고 싶다는 말과 함께...^^ 가족 모두 함께 가지고 약속했지만, 바쁘다는 핑계하에(맛벌이 부부인 관계로 본의아니게) 미루다가 드디어 오늘에야 새벽밥 먹고 창원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늦잠자느라 아침도 잘 못 챙겨먹던 아이들이 밤새 설레었는지 오늘은 스스로 벌떡 일어나 열른 출발하자며 보채기까지 했습니다. ㅎㅎ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바다의 물방울을 형상화한 역삼각형 모양의 외관에 "우~~와" 감탄사를 내뿜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2번째 방문인 큰아이가 달려간 곳은 1)수족관 2)해양생물관 3)해양체험관이었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체험하면서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배움을 얻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른인 나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ㅋㅋ 해양생물관에서 잡은 조개와 불가사리를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직접 볼 수 있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해양생물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켜 해양문화관에서 좀 더 집중하여 관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갯벌 디오라마를 관심있게 지켜보던 아이들이 그 옆에 놓여진 갯벌 관련 책을 찾아보며 갯벌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를 늘어놓으며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른 볼거리들이 많아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하고 자리를 뜨게 되었지만, 도서관에서 꼭 빌려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았답니다. 유치원생 막내는 수족관 바닥에서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을 보며, 혹시나 딛고 선 발로 인해 물고기가 아프지 않을까 피해 다녔다는 말에 바다 생물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깨달은 듯하여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해양체험관에서는 신나는 해양스포츠를 경험하느라 긴~ 기다림의 줄서기에도 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2학년에게는 다소 어려운 해양과학, 해양산업관은 아빠 엄마의 부족한 설명에도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우수성을 아는 듯 "우~~와" 감탄사를 늘어놓았습니다. 다른 어떤 박물관에서도 만나 볼 수 없는 새롭고 진귀한 여러 전시물들이 어른들의 눈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4D영상관은 1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1층 해양도서관에 가서 해양문화관에서 봤던 바다 생물을 찾아보느라 눈 깜짝할 만큼의 짧은 1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덕에(?) 4D영상관 예약을 잠시 잊고 있다가 급하게 후다닥 뛰어가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바다 전망이 보이는 카페같은 멋진 도서관에서의 짧은 시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집 가까이엔 이런 도서관이 있다면 하루종일 머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멋진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공원까지 올라간 우리 식구들은 망원경으로 보이는 오륙도와 바다풍경에 풍덩 빠져서 뽀뽀는 바람에도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봄이 되면, 등대 미니어와 어울려 핀 파릇파릇한 새싹들과 꽃들이 하늘공원을 더욱 멋지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때 다시 찾아오기로 꺽꺽 약속했습니다.

아침 일찍 개장부터 저녁 폐장까지 있었지만, 모든 전시장을 꼼꼼히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듯합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리기엔 너무나 아쉬운 볼거리, 즐길거리, 배움거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찾아오자고, 또 만나자고 박물관과 약속도장 꺽! 꺽!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적인 해양도시 부산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을 만큼 멋진 공간을 마련해준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_*

허수현(blueing0215)



갯벌, 바다로 열린 삶의 이야기

전시기간 | 2012년 11월 26일(월)~ 2013년 3월 31일(일)

전시장소 | 국립해양박물관 기획전시실(2F)

